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재난의 시작 성경: 마태복음 24장 4-14절

Tag: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마24:4-14)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종말론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종말의 때’를 가늠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엄히 금하신 일이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셨다. 즉, 하나님은 아직 그 날과 시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성도를 현혹하는 자를 믿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비밀의 자유가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께도 비밀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종말의 때를 마귀에게 들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운운하는 자는 오직 마귀일 뿐이다.

수학의 집합 개념을 이해하는 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비밀이 있고, 계시가 있다. 계시에 속한 부분은 모두 예언자를 통해 계시하신다.

비밀은 아무리 마귀가 해킹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물론 비밀이 아니지만, 가리워진 계시가 있다. 하나님도 예언자를 통해서 알리시는 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몫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엉뚱한 가설도 많지만, 인류를 번영케 하는 연구도 많다.

그래서 그런 계시는 커튼 뒤에 숨어서 들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누구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

아무튼 성경은 종말에 관해서 분명히 믿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종말을 대비하는 경건에 대한 말씀이다.

1.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 사람인데 하나님인척, 예수님인척, 성령인척 하는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사람은 영적으로 양떼와 같고, 어린양과 같다.
- 일반 계시와 관련되어서 사람에게에는 호기심이 많다. 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 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미혹되어서는 않된다. 양의 탈을 쓴 마귀에게 속지 말라.
- 그러므로 교회에서 멀어지면 않된다. 목회자와 멀어지면 않된다. 반드시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이 되어야 한다.
- 말씀 가려서 듣지 말고, 순종하면서 달게 받아야 하고, 말씀듣고 변화 받아야 한다.
- 사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 누구든 테러범이 될 수 있고, 갑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사람 타락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오직 경건한 자만 승리한다.

2. 두려워하지 말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 난리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 이 땅에도 전쟁의 가능성은 있다.
- 하마스는 자신들이 질 줄 알았지만, 온갖 거짓말과 테러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기 동료의 석방을 이끌어냈다.
- 하마스 우두머리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지시하면서도 자신은 자살하러 가지 않는다.
- 그러면서 자신들이 결국 목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 지는 전쟁을 하면서도 정신 승리를 한다.
-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미리 예언하신 목적이 그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라.
-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킨다. 행동을 마비시킨다. 모든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고장낸다.
- 그러므로 두려움을 조심해야 한다.
- 재난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3. 천재지변에 대한 예언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 전쟁, 지진과 기근, 각종 천재지변이 있으리라.
-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다.
- 재산상의 손해가 있게 되고, 죽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죽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재난에 대해서 초연해야 한다.
-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 순간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천국갈 준비를

해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의 순간에는 아픈줄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 아프다.

-천재지변을 대비하며 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4. 환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왕따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다.

-마귀가 자기 편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갖가지 음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미워한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 없다.

5. 실족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혀가도록 밀고한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다.

-불법이 일상이 된다.

-거짓말하며, 도둑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 할 것이다.

-그러나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승리한다.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6.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되어야 한다.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마24:4-14)

-그래야 끝이 온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재난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끝난다.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선교를 계획해야 한다.

-선교 만큼은 외교와 같이 한국기독교 선교회와 같은 전문 단일 조직이 감당해야 할 시기가 왔다. 단순히 선교사만 많이 파송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종말을 빨리 앞당기고, 천국왕국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종말을 적극적으로 선취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과제이다. 아멘.